

‘문화나눔’ 외면하는 광주시

소외계층 위한 ‘천원의 낭만’ 올 한 차례도 없어 민간단체 매월 ‘빛고을 천원의 행복’ 진행 대조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과 진행하는 ‘천원의 행복’은 시민들이 공연과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1천원을 내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문화 소외 계층들에게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 역시 지난 2007년 ‘천원의 행복’을 벤치마킹, ‘천원의 낭만’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단 한 차례 행사도 열리지 않는 등 지지부진, 광주시가 문화나눔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원의 낭만’을 진행해야 할 공연 예술제작조직위가 지난해 중반부터 심각한 내용을 겪으면서 파행을 거듭한 채 공연예술계를 치르는 데 급급, ‘천원의 낭만’ 행사를 진행할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역시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한 해가 다 가도록 한차례의 행사도 열리지 않았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히려 민간 예술단체 쪽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예비 문화사회적 기업인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빛고을 천원의 행복’이라는 프

로그래를 진행 중이다.

▲**진행 단계 공모 등 모색**
광주시는 뒤늦게 ‘천원의 낭만’ 활성화 방안을 놓고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일단 공연예술계 조직위가 당분간 채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 ‘천원의 낭만’을 진행할 단체를 모색 중이다.

광주시가 예산으로 책정해 둔 돈은 3천만원으로 연간 1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공연의 질을 위해 회당 적어도 500~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대가 적합하다고 판단, 매칭 펀드 형식으로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천원의 낭만’ 행사가 중단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서양화가 진원장 서울·독일 나들이

28일~11월3일 서울서 개인전 ‘독일 쾰른아트페어21’ 참여도



‘바람과 꽃의 노래’

남도의 풍광을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진원장(조선대 미술대학) 교수가 서울과 독일 나들이에 나선다.

먼저, 오는 28일~11월3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 아홉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꿈의 정원’을 주제로 거침없고 강렬해진 색채와 과감한 붓질이 돋보이는 신작을 선보인다.

“처음에는 화폭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비우려고 애쓴다”는 그는 예전의 작품보다 여백의미를 강조하고, 더욱 생생한 자연을 포착한 작품을 출품했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청보리, 완두콩, 녹두꽃, 배추꽃, 새 등 다양한 사물들은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색채의 향연을 만나 더욱 풍성해졌다.

또 풍부한 여백을 통해 이들 대상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동양적 세계관도 형상화했다.

미술사가 김승환(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씨는 “마치 흰 화선지에 거침없는 먹선이 뿔어나가듯 자연스러운 번짐의 느낌이 난다”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형상은 때론 중심으로 모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때론 화면 밖

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평했다.

이어 진 교수는 오는 29일~11월1일 ‘독일 쾰른아트페어21’에 참여해 유럽 미술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독일 대표 미술시장인 이번 아트페어에는 유럽의 60개 갤러리에서 300여 명의 작품을 소개하게 된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전 최고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광주 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미추홀인 이인 100주년기념 초대전 등에 참가했다.

현재 국전 심사위원과 이인성미술상 운영위원, 무등미술대전 심사&운영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정 제자들 ‘화이부동’전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예가 120여명 참여

서예가 학정 이돈홍씨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서울에서 스승의 예술 혼을 기리는 뜻 깊은 전시회를 연다. 오는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화이부동’전.

이번 전시는 이돈홍, 박원규, 정도준, 박용실 등 국내 대표 서예가들의 제자 120여 명이 참여한다.

이돈홍씨의 제자로는 강영화, 김영성, 김다순, 박숙자, 박원해, 오명섭, 유백준, 임춘식, 전현숙, 황정숙씨 등 30여명이 참

여했다.

유백준씨는 단아한 한글 서체를 선보이고, 김다순씨는 강한 힘이 느껴지는 행초서 출품했다.

이들 작가들은 대부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 작가·심사위원을 역임한 국내 대표 서예가들이다.

한편 이돈홍씨는 한국 서예계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와 원교 이광사의 서예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예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명섭 작 ‘소동파의 시’

극단 ‘푸른연극마을’ 3관왕

고나마루 전국 향토연극제 대상 등 휩쓸어



이번 작품으로 연출상과 연기상을 수상했다. 전국 규모 연극 경연에서 연출상과 연기상을 함께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오성완 대표는 “저승을 무대로 한 이번 작품은 영량이 추구한 순수함과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아픔과 추함을 보듬고 나가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또 “이번 수상으로 최근 전국 대회 대상을 받지 못한 지역 연극계의 숙제를 풀어 조금은 활기분하다”며 “내년에 열 예정인 푸른연극마을 페스티벌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랑아랑아 영랑아’는 오는 12월 초 보성고 광주에서 수상 기념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1993년 창단한 푸른연극마을은 광주에서 전용소극장 ‘연바람’을 운영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보성에서 ‘공연예술촌 연바람’을 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사진)이 제 6회 고나마루 전국 향토연극제에서 대상(상금 2천만원) 등 3개 부문을 휩쓸었다.

지난 10~18일까지 광주 공산성 성벽극장 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푸른연극마을은 대상을 비롯해 연기상과 연출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수상작은 강진 출신 서정시인 김영랑을 소재로 한 창작극 ‘랑아랑아 영랑아’다. 초연작인 ‘랑아랑아 영랑아’는 단순히 김영랑의 일대기를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영랑의 삶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묻는 작품이다.

극본은 물론 연출과 주인공 김영랑 역을 맡은 극단 대표 오성완씨는

김해인 시조집 ‘별들을 호린다고..’ 펴내

목포 마리아회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꾸준한 창작활동을 해온 김해인(54) 시인이 자신의 네번째 시조집 ‘별들을 호린다고 저 달을 참수하면’을 펴냈다. 시집으로는 열한번째, 시조집은 조선왕조의 창업부터 별

망까지의 약사를 일종의 인물 평전 형식으로 정리했다. 시조집은 마치 조선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인 ‘용비어천가’를 읽는 듯하다.

김 시인은 강진 출생으로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시집 ‘까마귀’, ‘사뭇 데모텔에서 달과 자고 싶다’, ‘기념사진’, ‘달에게 보내는 연서’ 시조집 ‘내 마음의 적소, 동양’, ‘이화’(梨花) ‘별들의 사원’ 등을 냈다.

<고요이침·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동년연극마을(극단) 사모가 끝났습니다.

심화된 구조를 복원 및 연약지만 보강공법의 신개념!!

최저임금 도입...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1. 모집대상

- 연령: 18~35세
- 성별: 남녀
- 학력: 고졸 이상
- 직종: 예술, 문화, 공연 분야

2. 모집절차

1. 신청서 접수 (10월 20일 ~ 11월 10일)
2. 서류심사 (11월 15일)
3. 면접 (11월 20일)

3. 선발인원

총 10명 (남 5명, 여 5명)

문의처 동년연극마을(극단) 사무국

전화: 061-571-3001-2 / 팩스: 011-684-0267

아이엘리시아

출산차, 피로차, 생리차, 각종 코팅 및 장식 (300개 원)

소코(원) : 100원, 150원, 200원, 300원
대코(원) : 100원, 150원, 200원

082-671-1199